

돌이켜보면 새삼스런 그때의 감개무량

고향 統營서 펴낸 처녀시집 「구름과 장미」

金春洙
시인

나는 나의 처녀시집을 1948년 9월 1일에 냈다. 시집의 이름은 「구름과 장미」다. 그때 東郎 柳致眞씨가 하고 있던 行文社라는 출판사의 이름만 빌렸다. 달리 아는 출판사도 없었고, 마침 동랑께서는 고향의 선배시라 청을 했더니 쾌히 명의를 빌려주셨다. 그때는 중진 대가라 해도 출판사가 시집을 여간해서 맡아주지 않았었다. 대가가 자비출판이다. 나와 같은 꽃나기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요즘 쏟아져나오는 시집 사태는 그때에 비하면 참으로 격세지감이 없지가 않다.

내 처녀시집은 총면수 70쪽의 알팍한 것이었다. 26편의 시가 실려 있다. 이것을 내기 위해서 나는 선천으로부터 몇번이고 편지를 먹은 끝에 가까스로 출판비를 얻어냈다.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나라로 27세대의 일이다. 벌써 43년전의 일이 되고 말았다.

그때 내가 살고있던 내 고향 통영(지금의 忠武市)읍에는 인쇄소가 꼭 한 군데 있었다. 인구가 5만이나 되는데 말이다. 인쇄소가 문화시설의 하나라고 한다면 그만큼 문화환경이 빈약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이던 것은 그 인쇄소가 일본인 소유이던 것을 인수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일제때부터) 우리동포가 경영했다는 그 사실이다. 경영자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해방직후에는 거기서 좌우를 가릴 것 없이 정치관계의 각종 유인물이 인쇄되어 나갔고, 해방전부터 죽보나 지방 선비집안의 문집 등이 인쇄되곤 했다. 나의 경우처럼 시집을 찍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랬는지 내 시집을 찍는 일을 아주 기뻐했다. 자랑으로 하는 것처럼도 보였을 정도다.

靑馬 柳致環이 서문 써줘

나는 시집을 내면서 그때 고향에 와 있던 선배 靑馬 柳致環씨에게 수록시들을 보이고 서문을 얻었다. 그 서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들이 있다.

(앞 줄임) 춘수의 시와 이름은 이미 시에 관심을 가진 이로서는 촉망하고 있는 바이지만 그는 항상 詩作에 있어서 개념적 용어 내지 표현을 피하고 말을 정련함으로써 그로 구성되는 분위기로서 음악이 음악의 세계를 이루듯 시의 세계를 이루려는 노력이

현저함을 알 수 있나니(중간 줄임) 진실로 인간생활의 모든 분야는 그의 속하는 민족을 떠나서도 존립할 수 있으려만 오로지 시와 및 시인은 그러하지 못하거늘 오늘 오매불망하던 우리의 조국이 환희작약을 다하지 못하는 채 재건되는 이 마당에 우리의 한 새로운 시인을 맞이하게 됨은 또한 그 의의가 적지 아니하다 하겠거늘 시인 춘수는 마땅히 누골정진하시라.

앞 반은 내 시의 특색을 간략하게 소개한 것이고, 뒤 반은 시인의 임무와 시를 쓰는 나를 격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시집의 제호가

내 처녀시집은 총면수 70쪽의 알팍한 것이었다.

26편의 시가 실려 있다.
이것을 내기 위해서
나는 선천으로부터 몇번이고
편지를 먹은 끝에
가까스로 출판비를 얻어냈다.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다.
우리 나이로 27세대의 일이니
벌써 43년전의 일이 되고 말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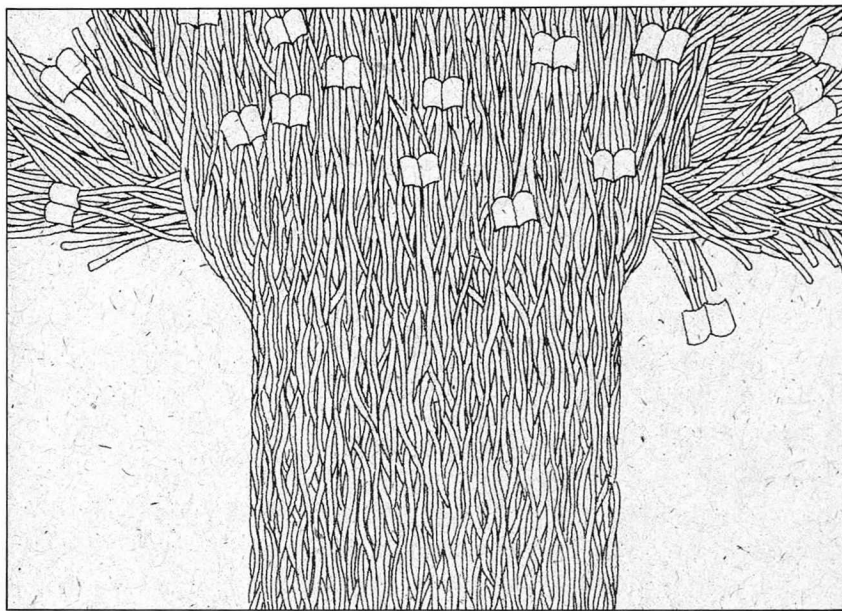
되기도 하고, 이 시집의 첫머리에 실리기도 한 시 「구름과 장미」를 여기 다시 옮겨보기로 한다.

저마다 사람은 입을 가졌으나
입은
구름과 장미되어 오는 것

눈 뜨면
물 위에 구름을 담아보곤
밤엔 들장미와
마주앉아 울었노니

참으로 누가 보았으랴?
하염없는 날일수록
하늘만 하였지만
입은
구름과 장미되어 오는 것

시집이 상재되어 고 趙芝薰 시인에게



보냈더니 그때 마침 병상에 있었던 모양으로, 시집 잘 읽고 위안을 받았다는 엽서가 왔다. 특히 시 「구름과 장미」를 지적해 주었던 기억이 지금 되살아난다. 그건 그렇다 하고 이 시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 둘 일화가 있어 여기 적어두기로 한다. 지금 시집을 만드는 젊은 세대들로서는 거짓말 같은 얘기가 되리라.

표지는 부산까지 가서 겨우 찍어

그때의 인쇄기관 형편은 구닥다라다. 페달을 발로 밟으면 채가닥 소리를 내며 인쇄기 앞면에 달린 큰 부채모양의 대로 된 손이 인쇄된 종이를 넘겨준다. 비능률적임은 더 말할 나위도 없고, 가다가는 조판된 활자가 인쇄기 밖으로 튀어나가는 수도 있다. 그럴 때는 다시 또 조판을 해야 한다. 활자가 없는 것이 있어서 나무나 고무로 파서 보충한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종이에 찍혀나오지 않는다. 그것을 바로잡는데 한참 또 법석을 떨어야 한다. 간신히 조절을 해놓으면 얼마 가지 않아 또 망가지거나 인쇄기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한다. 詩行이 비뚜름하니 옆으로 기울어진다. 그걸 또 바로잡아가면서 페달을 밟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무진 애를 쓰며 오랜 시간을 참고 견뎌야 겨우 70쪽짜리 시집 한권이 찍혀나온다. 인쇄공들의 콧대도 대단하다. 인쇄소 자체가 이미 말한대로 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그들(인쇄공)은 비위에 거슬리면 일을 하지

않는다. 일체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

표지의 그림을 全嶽林화백이 애써 그려주었는데 통영에서는 그것을 맡아줄 곳이 없었다. 석판으로 찍어야 하는데 부산까지 나가야 했다. 그것(표지화)을 소중히 싸들고 장장 다섯시간이나 배멀미를 견뎌가며 부산에 가긴 했으나 석판을 어디서 하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걸 수소문 하느라고 한나절이 걸렸는데, 겨우 찾아갔더니 일이 밀려 언제 되겠다는 약속을 하기 어려우니 두고 가라고 한다. 넉넉히 날짜를 잡아 말해달라고 해도 대꾸를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잘 부탁한다고 고개까지 숙이고 되돌아섰다. 한 보름쯤 뒤에 가봤더니 이번에는 또 왜 이제 오느냐고 짜증을 부린다. 하두 오지 않아서 어디다 처분해버릴까 하는 째미었다고 한다. 사죄백배하고 술값이라고 얼마를 더 얹어주고 찾아왔지만 기분은 한량없이 좋았다. 역시 하늘을 나는 듯했다. 이렇게 해서 내 처녀시집은 500부 한정판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다. 돌이켜보니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다.

제2시집은 1950년 3월20일자로, 내가 그때 거주하던 마산에서 냈는데 (75쪽) 마산의 인쇄소 사정도 통영의 그것과 대동소이해서 첫시집때와 같은 과정을 밟게 되었다. 文芸社의 명의를 빌렸고, 서문은 미당 서정주 선배가 써주었다.